

3. 가구 분포

총 4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 노씨(光州盧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등이 대표적 성씨이다.

4. 마을의 특징

1) 아산영당(鵝山影堂)

문창후(文昌候) 최치원(崔致遠)과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을 배향(配享)하는 조선 후기 사묘(祠廟)이다. 1888년(고종 25)에 유림에서 창건하였고, 최치원의 유상(遺像)을 봉안하였으며, 1925년에 최익현의 진영(眞影)을 추가로 봉안하고 향중에서 음력 10월 10일에 향사하고 있다. 강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로 지붕은 골기와로 팔작지붕을 이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로 지붕은 골기와로 맞배지붕을 이었다.

2) 약수(藥水)터

아산영당(鵝山影堂) 가까운 산 중턱에 있는 노송(老松) 밑에서 맑은 물이 솟는 샘이 있는데 피부병[특히 옷이 올랐을 때]에 특효라고 전한다.

3) 현종사(縣鍾寺)

조선 초기에 산 중턱에 현종사(縣鍾寺)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이 산을 현종산(縣鍾山)이라 하였는데, 매우 높은 산(山)이다. 지금은 사찰(寺刹)이 폐허(廢墟)되었다.

제7절 신림리(新林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중첩된 산길을 따라 4km 거리에 고성2리인 가원동(佳原洞)이 있고, 서쪽은 마을 우측 산(山) 정상(頂上)을 경계로 대흥리(大興里)가 있으며, 멀리 악구산(岳丘山)이 있다. 남쪽은 읍남4리와 접하고, 북쪽은 정림리와 호월리인 용저동(龍渚洞)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신림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폐교되었으며, 마을회관은 2000년에 신축되었다.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신림보건진료소가 2012년에 건립되었다. 울진군이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울진군립추모원이 조성되고 있다. 울진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산 송이 생산지이다.

2. 마을의 역사

1) 비래(飛來)

1700년경에 신림(新林)에 살던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개척하였으며, ‘마을 앞 개울의 작은 폭포수(瀑布水) 줄기가 흡사 하늘로 나는 듯하다’ 하여 비래(飛來)라 하였다 한다.

2) 삼거리(三街)

비래동(飛來洞)에서 서쪽으로 세 고개를 넘으면 넓은 평원(平原)이 있으며, 이곳에 1720년경 최성해(崔聖海)라는 사람이 이주(移住)하여 살았다. 이곳은 금강송면으로 가는 길, 정림3리인 올미골(兀尾谷)로 가는 길, 비래동(飛來洞)으로 가는 길의 세 갈래의 길이 나 있으므로 삼거리(三街)라 부르고 있다.

3) 설매(雪梅)

이병섭이라는 사람이 처음 살았는데 마을 주위에 산매화(山梅花) 나무가 많아 꽃잎이 떨어질 때는 흰 눈(雪)이 내리는 것처럼 희었다 하여 설매(雪梅)라고 불렀다 한다.

4) 쉼배미

산골짜기에 1826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데 긴 계곡(溪谷)에 논(畓)을 쉼(50)다락을 만들었다 하여 쉼배미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5) 신림(新林)

1475년경에 순흥 안씨(順興安氏)가 처음 개척하였고, 1480년경에 경주 이씨(慶州李氏)가 입주(入住)하여 마을의 세력을 키웠다고 하여 신림(新林)이라 하였다 한다. 그 후 1580년경에 해주 최씨(海州崔氏)가 입주하였으며, 1650년경에 광주 노씨(光州盧氏)가 입주하였다.

3. 가구 분포

총 87세대가 거주하며 해주 최씨(海州崔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광산 노씨(光山盧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석탑(石塔)

신림리 마을을 양편(兩便)에서 두르고 있는 산이 청룡(靑龍), 백호(白虎)가 서로 충돌하는 형세(形勢)여서 마을에서 재액(災厄)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이 돌을 모아 쌓은 석탑(塔)이다.

2) 성황당(城隍堂)

매년 음력 정월 보름 날 자시(子時)에 마을의 강녕(康寧)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3) 신림팔경(新林八景)

신림 마을 앞을 흐르는 내와 숲의 경관이 뛰어난 8곳을 신림팔경(新林八景)이라 부르며, 이는 천연대(天淵臺), 냉풍정(冷風亭), 망월봉(望月峯), 설봉(雪峰), 덕은산(德隱山), 설매(雪梅), 구두산(拘頭山), 조심봉(鳥心峰)이다.

제8절 연지1리(蓮池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뒷산 너머에 연호정(蓮湖亭)이 있으며, 남쪽은 읍남3리(邑南三里)이다. 그리고 북쪽은 연지3리(蓮池三里)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1007년경(목종 10)에 죽변면 화성리에 있던 산내성(山內城)을 연지1리(縣內洞)로 이름(移邑)하면서부터 마을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371년(공민왕 20)에 왜구(倭寇)의 급습으로 폐허되었으며, 그 후 조선조 중엽에 경주 이씨(慶州李氏)가 입주(入住)하여 새 터전을 마련하였고 현내동(縣內洞)을 고현성(古縣城)이라 하였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됐으며,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